

# 광주시, MZ세대에 초점 맞춘다

## 청년특별보좌관직 신설

## 청년층 소통창구 마련 추진

광주시가 과거에 없던 청년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는 등 최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MZ세대(1981~2010년생)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선대위에 청년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서 "공직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정당들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 등용 추세를 보고 청년 역할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정무특보(정무수석)에 더해 청년특보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신설 절차를 확정하고 공모를 거쳐 청년특보를 임명할 방침이다. 청년특보는 4~5급으로 전문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 1명(정무수석), 서울 1명(대외협력수석보좌관), 청년특보 1명 등 특보 3명을 두게 된다.

현재 공직인 광주 정무특보와 청년특보 임용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 청년 특보직 신설은 선거 대비 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 시장은 "행정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 위원회 등 조직이 있으나 정무적으로 청년 문제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청년이 소외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해당 분야 오랜 근무 경험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보를 임명하고, 청년이 광주 청년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시장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재명 ‘전두환 공과’ 발언 윤석열과 달라”

## 이용섭 시장 “역사의 범죄자라 확실히 결론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발언은 엄밀히 차별화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 당시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도 이 후보 발언에는 어떤 논평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시장은 “윤 후보는 전두환을 옹호하는 듯이 발언했지만, 이 후보는 공과 발언 후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범죄자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전두환의 경제 운용에 대해 성과라고 발언한 것은 광주시민, 그리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유족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후보

는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고 확실히 못 박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도 별다른 반발이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의 광주 방문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지난 11일이 후보가 경복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했다. 사실상 대구·경북을 의식한 전두환 찬양 발언”이라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유독 야당 후보에 비판을 가했던 이용섭 시장과 일부 오월 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정체 구간 특별관리

### 빛고을로·무진대로 등 12곳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 교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2호선 공사로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 등 12곳을 중점 관리 지점으로 정했다.

중점 관리 지점은 빛고을로, 무진대로, 백운광장, 동광주·동림·지원·봉암·서창 나들목(IC) 등이 다.

우선 지하철 2호선 공사 상황과 교통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사 구간에서 혼잡이 심한 일부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 진행하도록 좌회전을 금지해 좌회전 차량은 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21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한 교통경찰관, 신호수 등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로 차로를 추가 통제하지 않도록 해 왕복 4

차로 이상을 확보하고 상무중앙로, 운천로, 회재로, 서암대로 등에서는 불법 주차차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구간 복공판 설치를 90% 이상 완료하는 등 공사 점용 구간을 줄여 차로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주요 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상습 정체 구간 차량 흐름을 추가로 개선하고 다음 달에는 공사·우회 구간을 안내하는 월별 사전 예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제2순환도로와 무진대로 나들목(IC)에 집중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로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민선7기 브랜드 시책 ‘블루 이코노미’ 순항

## 2년 연속 대규모 국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전남도가 2019년 새로운 전남의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2년 연속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6대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프로젝트별로 블루 에너지는 내년 정부예산에 1878억원을 반영했다. 전남이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계적 터빈사 베스타스와 협약,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마련했다. 올해 발의된 특별법이 현 정부 내 통과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고, 내년 상반기 단지를 착공한다.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개발, 상생일자리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표모델로 만들 방침이다.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는 학부 수시모집에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 대학 운영에 필요한 250억원을 비롯해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용역비 15억원, 조천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인공태양공학 연구소 등 한국에너지공과대와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도 관련 예산이 반영돼 세계 톱10 공과대학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블루 투어는 국비 1조596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이 세계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토대를 다졌다. 올해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됐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15억원과 세계적 해안관광도로가 될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착공비가 각 1억원이 편성됐다.

블루 바이오·블루 트랜스포트는 각각 837억원과 1천837억원이 반영됐다. 전남의 미래첨단 전략산업을 이끌고 있다. 올해 지로백산·세포지리제 상용화 고도화 사업 18억원을 신규 확보해 백산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백산 오픈이노베이

션 랩 구축 사업도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국비 28억원을 편성했다. 백산·면역치료에 특화된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 부품 시험생산 지원기반 구축 사업 30억원은 산업부안보다 10억원이 증액됐다. 앞으로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방침이다.

블루 농수산은 382억원이 편성돼 농·수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 20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6억원 등 사업으로 미래 농수산업을 이끈다. 블루 시티로 생태자원과 IT기술을 결합한 첨단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명칭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블루 이코노미로 타 지역보다 앞장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올해보다 81건 7484억원이 늘어난 2022년 2조4382억원이 반영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순풍이 불고 있는 만큼 2023년에 반영할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전화친절도 4년 연속 ‘우수’

전남도가 ‘2021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종합점수 94.1점으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 116개 단위부서 2971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이뤄졌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원이 민원인을 가장 응대 태도와 답변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듣고 평가했다.

전남도 전체 종합점수는 지난해보다 0.7점 오른 94.1점을 기록했다.

평가 항목별로 고객 맞이 단계 96.3점, 적극적인 응대 태도 95.1점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 95.1점, 위원회 94.9

점, 도 본청 94.2점이었다. 최근 3년 종합점수는 2018년 89.8점, 2019년 92.0점, 2020년 93.4점이었다.

평가대상인 116개 단위부서 중 5개 우수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98.7점), 도의회 농수산업위원회(98.0점), 친환경농업과(97.0점),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96.8점),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96.6점)로, 시상금과 함께 부서장 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한다.

이석호 전남도 소통기획팀장은 “4년 연속 ‘우수’ 등급 평가 결과는 친절을 의무로 여기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